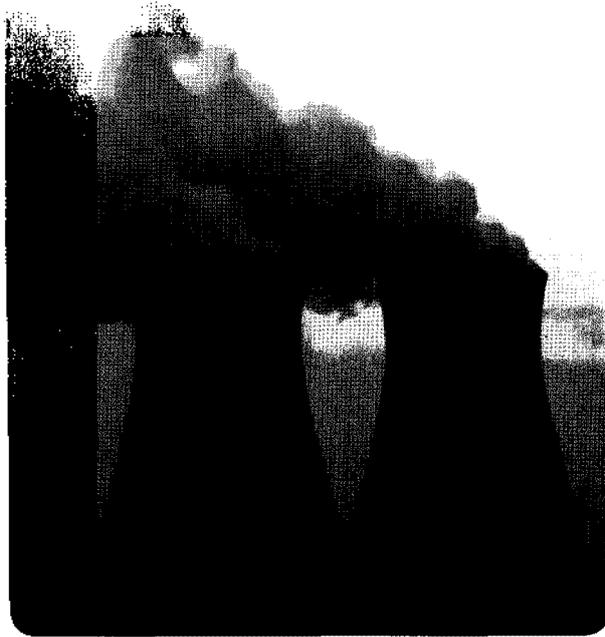


건강 증진에 도움 줄 새로운 공기 질 표준

미국 환경보호국(EPA) 새로운 공기 질 표준 제정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발전소로 인한 수은오염과 공기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그들이 제안한 공기 질 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환경과 공공사업 상원위원회와 대면했다. Lisa Jackson 환경보호국장은 공중보건에 미치게 될 새로운 공기 관련 표준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20년간의 정치적 그리고 법직공방 끝에 지난 3월, 환경보호국(EPA)은 발전소로 인한 수은오염과 공기오염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표준을 제안했다. Jackson 국장은 위원회에서 발전소들이 의무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따를 때, 미국 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술 제시는 약 1만7,000건의 요절과 1만 1,000건의 심장마비, 12만 건의 어린이 천식, 1만 1,000건의 어린이 급성기관지염, 1만2,000건의 응급실 환자와 입원, 그리고 85만 건의 병으로 인한 결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모든 발전소로 하여금 2016년까지 이 표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어서 석탄과 전력산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Jackson 국장은 공기오염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고 1400억 달러의 사회적비용 절감 예정

Jackson 국장은 “이를 사실로 증명해 보이겠다”며 “수은과 미립자로 인한 오염은 미국 국민 삶의 질을 낮추고 다음 세대의 발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국은 법을 따르기 위해 미국 산업계에서 연간 110억 달러를 소요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기 질 표준은 연간 59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의 연간 공기 질 보고서에 따르면 Louisville metro area는 1년 내내 단기간 미립자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발전소 때문이라고 한다.